

자기개발로 한뼘더 성장할 내일의 나

배우
이정현



월간 **내일**

10 October 2024
Vol.593



Contents

2024.10

Vol.
593

자기 개발로
한 뼨 더 성장할
내일의 나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Special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 04 **토픽 에세이**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
- 08 **쉬어가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 10 **어쩌다 우린**
기업의 성장 비결, 핵심은 근로자 역량 강화 지원
(썬한울씨앤비)
- 14 **내일 인터뷰**
자기 개발은 자신감의 원천이자 저의 원동력입니다
배우 이정현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 18 **내일을 향한 도약**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선명한 '경험'이 또렷한 '내일'로!
박준형 씨
- 22 **고용 아카이브**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의결
- 26 **희망 브릿지**
인식의 전환과 직업의 전환으로 연 은빛 인생 2막
최종원 강남취창업허브센터장
- 30 **일터애(愛)서**
소상공인·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해요!
- 32 **내일, 매일**
업사이클, 버려진 것에 새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
- 36 **기자단이 간다**
재취업 준비하면서 돈도 받는다고?
취업촉진수당 받고 똑똑하게 취업해보자!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 38 **내일, 플레이스**
수원 행궁동 성곽길을 걷다
- 42 **트렌드 프리뷰**
독서도 아닐로그 열풍, 필사에 빠진 MZ세대
- 44 **MOEL 뉴스**
- 48 **팩트폴니스**
소비자와 마케팅의 진정성 있는 만남
- 50 **잡, MBTI**
경찰관·경호원
- 52 **넬톤**
자기 개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 가능성이 주는 즐거움
- 54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인생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
우리는 배움과 도전,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기 개발이란 거창하지 않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매일 천천히 조금씩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급해 하지 않되
조금 더 발전할 내 모습을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당신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자기 개발에 도전하기 버거워할 때 흔히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라는 이유를 들곤 한다. 그러나 자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찰나의 시간**이라고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다.

글 김시현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은 보름달 같고 피부는 푸석하고 허리는 실종되고 두툼해진 허리 덕에 발가락은 보이지도 않았다. 도저히 못 봐줄 정도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돌아켜 보니 하루 이틀 만에 살이 찌진 건 아니었다. 그동안 먹어왔던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디저트, 야식을 습관처럼 꾸준히 장착해 왔던 결과였다.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은 습관으로 굳어진 시스템이다.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자리 잡기만 한다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시간은 알아서 결과를 도출해 낸다. 의도적으로 살이 찌려고 한 게 아닌데, 습관이 시간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시간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스스로 간다. 그렇다면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의 핵심이다. 하루에 15분 만이라도 자기 개발하는 습관을 만들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15분 실내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운동하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달라붙었다. 그 결과 8년째 운동을 하고 있고, 15kg 감량에 성공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15분이라도 투자하면 시간이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채워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변화한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뇌의 신경회로는 외부의 자극이나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조가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된다. 인간의 뇌는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의 뇌보다 가소성(可塑性)이 뛰어나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노화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을 활용한 자기 개발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성장한다.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매일 15분이라도 외국어를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언어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습관은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뇌의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다른 분야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소한 15분이 시간이라는 물리적 힘을 만나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운동 역시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



이다. 습관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증가 등 다양한 인지적 이점을 가져온다.

습관은 나와 행동이 신뢰를 쌓아가는 순간이다.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치를 쌓았다면 좋은 습관이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 나의 100년을 책임져 줄 좋은 습관을 하루 15분 만이라도 실천해 보자. 독서, 운동, 명상, 새로운 기술 학습 등 무엇이든 좋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자. 15분이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자.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때 삶은 가장 빛난다. 꾸준히 지속하면 결과는 알아서 따라온다. 결과는 보장되어 있으니 여정을 즐기자. 우리의 100년을 빛나게 할 첫걸음을 응원한다.

김시현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삶의 무기가 되는 좋은 습관>, <멘탈 트레이닝> 등을 집필한 에세이스트 겸 사고혁신연구소장

기업의 성장 비결, 핵심은 근로자 역량 강화 지원

‘2023 근무혁신 우수기업’ (주)한울씨앤비

자기 개발은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 평생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다.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일과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고, 업무적인 역량을 쌓음으로써 나 자신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주)한울씨앤비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도모하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조병우

Q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주)한울씨앤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주)한울씨앤비(이하 한울씨앤비)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 전문 기업으로, 주로 토목 설계 및 건설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BIM 기반 4D/5D 건설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공정 관리와 기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한울씨앤비는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30만 원의 자기 개발비와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기준, 전 직원의 65%가 자기 개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비와 학자금 지원 제도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Q 근로자들이 자기 개발비와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각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 교육이나 외국어 공부,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비, 학자금 지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데요. 개인의 역량 발전은 물론 업무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같은 복지는 한울씨앤비의 강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자기 개발비 지급 외에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고 계신 제도가 있다면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근무혁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차출퇴근제, 반반차 제도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2023년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Q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힘쓰고 계신 만큼, 기업 문화 또한 소통 친화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과 임직원 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해 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친화 경영을 바탕으로 사내에서 직원들의 여가 생활을 장려하며, 생일자 및 명절 선물, 건강검진 휴가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다양한 복지들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비 지원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Q 한울씨앤비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건설 서비스를 준비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BIM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건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기 개발비로 자격증 취득, 역량 강화에 도움됐어요



㈜한울씨앤비 자기 개발비 수혜 근로자

저는 설계팀 소속 1년 차 사원입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어떻게 해야 업무 능력을 쌓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 회사의 자기 개발비 지원을 통해 설계 관련 교육과 시험비를 지원받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회사에 향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배우 이정현

자기 개발은 자신감의 원천이자

저의 원동력입니다

Q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올해 방송된 SBS 드라마 <7인의 부활> 이후, 계속해서 시청자와 관객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고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보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월간 내일>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Q 학창 시절 유도를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기는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동경해 오던 꿈이었는데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외롭고 심심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무모한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의병 제대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에 일찍 나오게 된 것이 하고 싶었던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됐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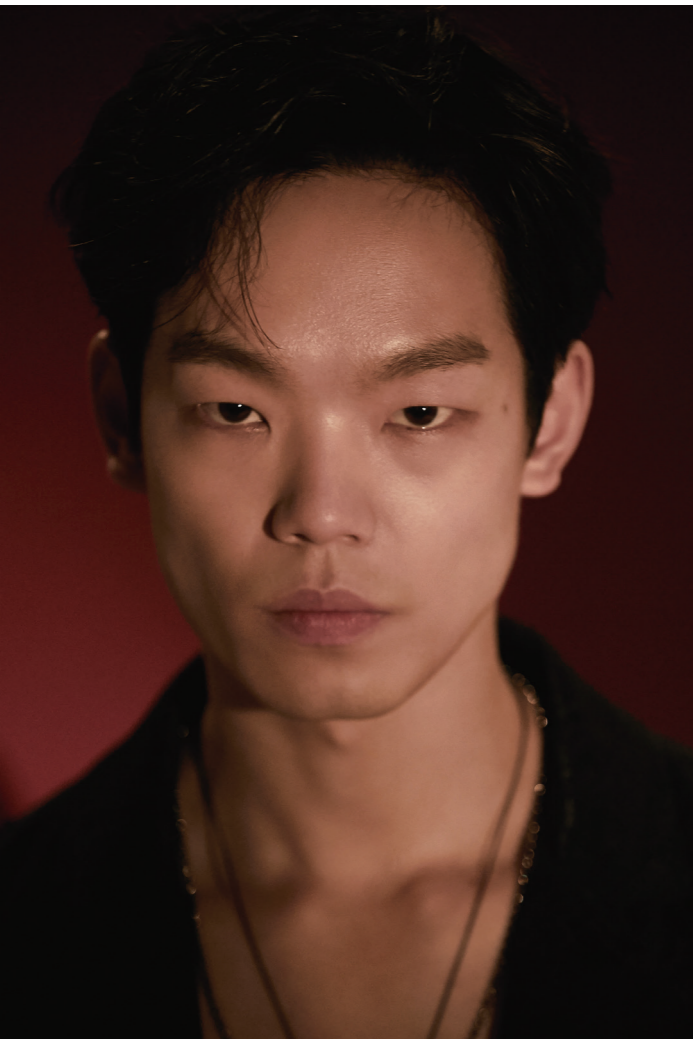
Q 많은 작품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연기해 화제가 됐는데, 연기할 때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극 중 다른 인물들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누군가에게 자기 개발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혹은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표 그 자체이기도 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악랄한 일본군 간부, <스위트홈>의 조직폭력배, <신병>의 악마 상병 등 강렬한 악역 연기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이정현은 자기 개발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일 거듭되는 성장을 꿈꾸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액터디렉터스·화앤담픽처스·KT스튜디오지니





제가 맡은 인물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제 것을 찾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집중한 순간들이 모여 좋은 캐릭터와 좋은 극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배우는 혼자서 아닌 많은 스태프, 동료 배우들과의 합을 통해 이뤄지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원자격증 실기교사(체육), 유도 지도사 자격증, 유도 심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퍼스널트레이너, 소형선박조종사, 프리다이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유통관리사, 워드프로세서, 한자 3급, JLPT N2 외에도 총 21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꿈꾸던 시기에 준비하거나 학위 취득과 함께 받은 자격증도 있고, 배우 데뷔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해 왔습니다. 과거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자격증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Q 현재도 준비 중인 자격증이 있나요?

최근에는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보고 싶어서 2종 소형 면허를 땀습니다. 취득한 자격증 모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것이기에,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모든 자격증이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하는 자격증은 없지만 언제라도 관심 가는 분야가 생기면 또 자격증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Q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 가운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기 개발의 의미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정현 님에게 자기 개발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저를 위한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자격증 취득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자격증을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해 합격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남다르게



자기 개발을 성공이나 실패로 나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Q <월간 내일> 10월호 주제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에 도전 중이거나,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두렵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조금씩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간단한 일들이 모이다 보면 좀 더 성장하고 더 큰 일들을 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개발을 성공이나 실패로 나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걸음걸음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오래오래 연기하는 배우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우수사례자
 박준형 씨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선명한 **경험** 이 또렷한 **내일** 로!

최근 취업시장은 직무 관련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취업을 고민하며 실무 경험이 절실했던 대학생 박준형 씨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해, 실전 역량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글 김주희 사진 김경수

협업과 멘토링 니즈를 충족하다

요즘 취준생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실무 경험이다. 많은 기업이 직무 이해도가 뛰어난 데다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지식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경성대학교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박준형 씨 또한 고민이 많았다.

특히 혼자서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해야 하는 실무를 경험하는 기회가 좀처럼 없었기에 취업 준비를 앞두고 다양한 길을 모색했다.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쌓기 시작했다.

“2년 전에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친화형 ESG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코웨이 홈케어 사업부에서 ESG사업 기획부터 개발, 시행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는 다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직무에 연관된 핵심을 익힐 수 있었거든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협업 체계, 멘토링, 실전 업무 수행까지 제가 찾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며 직무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기업탐방형과 프로젝트형, 인턴형으로 나뉘는데, 박준형 씨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을 수행했다. 팀을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현직자의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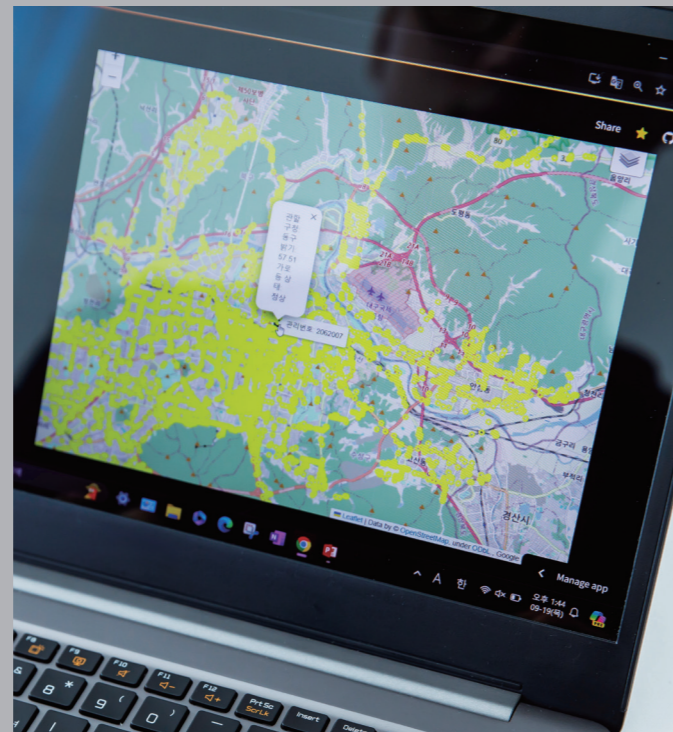
박준형 씨를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된 ‘우리는 전 부’ 팀은 인공지능 이미지 활용 가로등 정비 솔루션 ‘비추다’를 개발했다.

이는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조도 환경을 개선한 시스템이다. 야간 시간대 운전자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동작을 빠르게 인식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기획한 것이다.

“기존 민원 접수와 인력 점검에 의존한 아날로그식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위성 이미지의 픽셀을 기준으로 실시간 가로등 밝기를 탐지해 고장 나거나 조도가 낮은 가로등을 선별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죠. 대구공

공시설관리공단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팀원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서로 다른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이들과 협업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게 꼭 필요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팀원들은 기업 KT의 현직자로부터 멘토링을 받았는데, 일 경험의 몰입도를 높인 섬세한 배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신입사원의 선임 역할을 할 가상 인물 ‘C과장’을 설정하고, 업무용 메일과 기업명이 적힌 서류들을 사용하면서 ‘현실’처럼 느껴지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준형 씨는 현직자가 경험한 노하우를 배우고,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 직무를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만큼 직장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C과장님의 업무 지시에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꼈어요(웃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의 세부적인 프로세스, 데드라인에 맞춰 일을 마무리하는 역량,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소통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좌절과 시련도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경험이 개인적인 성장을 이끈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 설정, 꿈에 더 가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요자와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비추다 서비스를 완성한 우리는 전부 팀.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프로젝트 작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비스가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박준형 씨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자신의 직무 성향을 파악하고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전공인 빅데이터나 통계학에 대해 더욱 깊이 학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더욱 명확해졌고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쌓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협동로봇 분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와 로봇의 물리적인 장점을 결합해 제조 환경을 혁신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경험치는 비옥한 토양이 아닐는지. 꿈이라는 씨앗을 심고 발아하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줄 테니 말이다. 2025년 초 졸업을 앞둔 박준형 씨 또한 경험에서 파생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 직무를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 또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나만의 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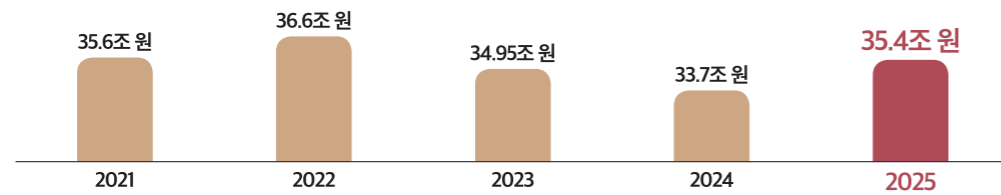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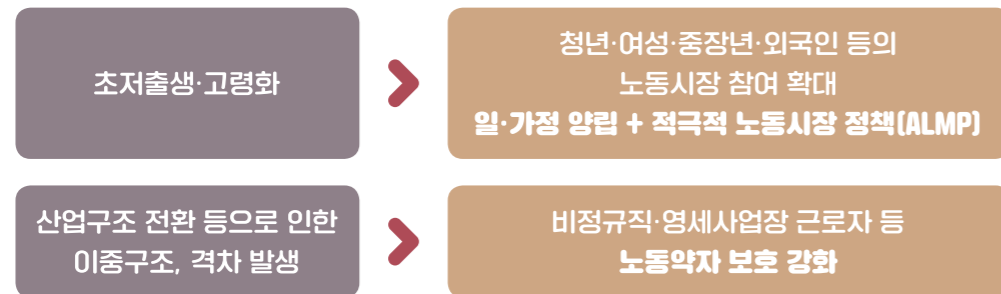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및 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절감 재원은 정부의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재정 투자 방향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만드는 출산·육아 지원

2025년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육아 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휴가 및 휴직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대체인력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한다.

근로자 활용 제도

	현재	2025년 예산안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1일 유급)	연간 6일(2일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20일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6+6 육아휴직제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1개월) 월 250만 원 (2~6개월)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 지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상한 200만 원	상한 220만 원

근로자·사업주 지원 제도 (중소기업)

	현재	2025년 예산안
난임치료 휴가	정부 지원 없음	유급 2일분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	5일 지급	20일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월 80만 원 ·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사용까지 확대 · 파견근로자 사용도 지원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월 20만 원)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월 20만 원)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and 근로자 안전 강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인프라 확충과 일터 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 등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권리구제 강화와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부당한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노동약자 보호 강화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
	이음센터 확충 (6→10개소)
	법률·심리상담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
	일터개선·권익보호·복지증진사업 신설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용자 등 확대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및 기술지도 확대
	폭염재난예방 설비 지원 신설
	공정·설비 개선 및 환기장치 지원 등 확대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강화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인프라 확충



재학생부터 재직자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진로를 탐색하는 재학생부터 졸업생, 구직자, 재직자 등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

진로 탐색 중인 재학생·졸업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대일 상담 → (저학년)진로 설정, (고학년)역량 강화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60개(+10개)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미취업 졸업생 발굴 →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 대학(120개교) 운영

구직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인턴·프로젝트 등 일경험 기회 제공(5.8만 명)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 확대	첨단·전략 산업 설비 보유 대학 등 훈련 운영
지역청년 체계적 지원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

재직 청년

산단 취업 청년 직장 적응 지원	산업단지 취업청년에 대한 특화 온보딩 사업 신설
청년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가칭]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빈일자리 취업 청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I 유형 신설 (빈일자리 취업 청년·사업주 모두 지원)
선진기술 습득 기회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신설(1.3만 명)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 현장(국내+해외) 훈련 기회(연수) 제공

인식의 전환과 직업의 전환으로 연 은빛 인생 2막

최종원 강남취창업허브센터장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은퇴 후 재취업에 두 번 성공한 이가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 가슴이 설렌다는 최종원 강남취창업허브센터장은 경험과 노하우를 자신과 같은 중장년에게 전파하며 은퇴한 중장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김경수

꿈꾸는 중장년을 지원하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생애 설계에 대한 강연을 비롯해 은퇴한 중장년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최종원 센터장. 과거 IT 계열에서 개발자로 재직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비전을 수립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숨은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느꼈다. 그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직장인, 특히 청년들을 코칭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멘토링을 하다 보니 많은 중장년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해주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장년들은 경험이 많고 노하우도 풍부하지만 그걸 공유할 만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은퇴한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배움도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이 같은 이유로 그는 중장년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은퇴한 중장년이 취업, 창업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을 비롯해 취미와 생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중장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그가 현재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연 또한 중장년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과정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잘 꾸려 나가는 방법 등 중장년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다.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이 우선돼야

오랜 세월 몸담았던 회사에서 은퇴한 후 한때

의료재단에 적을 두기도 했던 최종원 센터장은 은퇴 이후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던 그는 두 번째 직장을 은퇴한 후에도 다시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렇게 지역 내 취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강남취창업허브센터의장이 된 그는 자신이 천직이라 여긴 멘토링을 업으로 삼아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을 두 번이나 해낸 최종원 센터장은 중장년에게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강조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휴대폰 하나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또래는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지 않아 음식 주문을 못하는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변화하려면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에서든 사람이 직업적으로 당장 디지털을 다루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먼저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동영상은 어떻게 편집하고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취업의 폭도 넓어지고 생활도 더욱 편리해질 겁니다. 휴대폰 하나만 잘 사용해도 삶이 변화합니다.”

내리막길은 ‘실패’가 아닌 ‘새로움’

누구나 오르막길을 만나면 내리막길도 마주하는 법. 은퇴와 함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중장년은 오르막길이라는 전성기를 지나 자신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종원 센터장은 내리막길이 ‘실패’나 ‘저물’이 아닌 ‘또 다른 길’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퇴 후 직업 전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일 자체가 두려운 분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업 전환을 두 차례 했는데 소득은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새로운 일을 하니깐 즐겁습니다.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느끼던 소속감과 연대감을 잃고 고립감에 힘들어하는 중장년도 많다. 그런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최종원 센터장의 생각이다. 그 또한 은퇴 후 다양한 활동을 해 오며 만난 인연이 재취업으로 이어졌고, 운영 중인 중장년 커뮤니티에서도 회원들의 교류가 취업 등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최종원 센터장은 자신의 도전과 경험이 또 다른 중장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다 보면 인생도, 직업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 구직 청년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폐업 소상공인과 청년의 새 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참여자 맞춤형으로 강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난 8월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훈련 참여 수당(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과 취업 성공 수당(최대 1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을 지급해 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훈련 참여 수당(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과 취업 성공 수당(4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1만 3,000여 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구직 중인 청년과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 훈련 참여 수당·취업 성공 수당 지급
-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청년

-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추진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훈련 참여 수당·취업 성공 수당 지급



업사이클, 버려진 것에 새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

기후위기 시대, 업사이클은 단순한 제품 제작을 떠나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생활 전반에서 실천해야 하는 문화다. 버려진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환경보호의 또 다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국내 1호 업사이클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의 박미현 대표에게 업사이클 산업에 대해 들어 본다.

글 김지연 사진 고인순

때문에 디자인 영역에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 식품, 소재 개발 등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쓰레기와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업사이클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업사이클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장관상을 수상했던 고용노동부의 창업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업사이클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재활용 제품은 지저분하고 저품질이라는 선입견이 적지 않았는데,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를 위한 일시적인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8년 국내 첫 업사이클 사회적기업인 터치포굿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현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기술 연구, 제품 디자인을 비롯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캠페인 기획, 도시형 환경교육 등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제품 제작 과정에서는 저소득 이웃, 장애인 일자리 제공 시설과 함께합니다.

Q 업사이클이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업사이클은 부산물, 폐자재 등 쓸모없고 버려진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재활용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일이기



Q 업사이클로 제작 가능한 제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의 경우, 70여 가지의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위한 DIY 키트, 낙하산을 재활용한 에코백, 유니폼을 활용한 응급처치함,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사이클 산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기본 상식

업사이클 산업의 직업 종류

패션 업사이클 디자이너, 공간(인테리어) 업사이클 디자이너, 식품 업사이클 전문가, 업사이클 교육 강사, 신소재공학자, 업사이클 마케팅 전문가 등, 소재 및 제품 개발, 교육, 홍보 등과 관련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

업사이클 관련 자격증

디자인 관련 종사를 희망한다면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패션디자인기사 등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업사이클 전문가, 업사이클 지도사, 업사이클 교육 전문가, 업사이클 공예 지도사 등 민간자격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스카프 등을 제작합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댕기머리끈이 국립박물관 공식 굿즈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호주에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코알라의 화상 치료를 후원하기 위해 페트병을 재활용한 코알라 인형담요를 제작했었는데요. 이후에도 위기 동물을 돕기 위한 담요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Q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는 어떻게 공수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업사이클이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런 것도 업사이클이 되냐며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명 페트병의 경우 분리배출 정책이 시행된 이후 품질이 무척 좋아져



만들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원단이나 제품 종류가 2~3개뿐이었다면 지금은 선택지가 3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Q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는 것보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천천히 길게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환

경보호도 장기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업사이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나요?

업사이클의 경우 가장 큰 경쟁력은 소재에서 옵니다. 소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 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진입한다면 업사이클도 더욱 발전하리라 봅니다. 업사이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소재, 결과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로 만든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며 행복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것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취업 준비하면서 돈도 받는다고?

취업촉진수당 받고 뚝뚝하게 취업해보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이기도 할 텐데요,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중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 김지영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돕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촉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이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으로 나뉩습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훈련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훈련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실업인정일 및 훈련 종료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등을 의미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수당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제외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다른 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을 통해 재취업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더 나은 구직 환경이 조성되고, 재취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원 행궁동

성곽길을 걷다

가을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곽길을 따라 걷는다.
그러다가 성곽 안 동네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궁금해
발걸음을 옮겨본다. 걷다가 발견한 반가운 사실 하나.
왕이 사랑했던 행궁동은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동네가 됐다는 것이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왕의 애정이
담긴

동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궁동은 '화성행궁'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성행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행궁동이 품은 이야기가 궁금하거든, 화성행궁 이전에 수원화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수원화성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시 최고의 명산이었던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나서 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화성행궁은 수원화성 안에 있는 행궁이다. 행궁이란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별궁을 의미하는데,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옮긴 이후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원 행차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렀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행궁 안 봉수당에서 열었다. 또한, 어머니의 침전인 장락당과 봉수당을 서로 통하게 만들어 불편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정조의 화성행궁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화성행궁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와 혼자가 된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효심이 담긴 곳이다.



행궁동으로 모여들다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수원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행궁동이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중이다. 사실 행궁동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원의 구도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었다. 인근에 수원화성이 있고, 마을을 둘러싼 성곽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은 이곳에 발 디딜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3년 생태교통축제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축제를 준비하던 수원시는 건물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며 거리를 재정비했다.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행궁동에 미술관, 카페, 공방 등이 문을 열면서 분위기가 밝아졌다.



성곽길 따라 골목길 따라



골목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행궁동은 '행리단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이태원 경리단길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주변에 성곽이 있어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메인은 화서문부터 장안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지금은 워낙 유명해진 탓에 화서문, 장안문, 화홍문 일대를 아울러 '행리단길'이라고도 한다. 행리단길은 수원과 행궁동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마을부터 성곽이 보이는 레트로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다. 성곽이 보이는 카페들은 주말이면 대기를 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모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였던 나혜석 생가터와 수원화성 복터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누군가가 즐겨 찾는 카페로,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꽃밭으로 사람들을 반기는데,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버스킹하는 사람들, 가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성곽길에 오르면 성곽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행리단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거니는 성곽길 아래 행궁동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다.

영상매체의 발달로 침체에 빠졌던 인쇄매체가 다시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아날로그 열풍과 맞물려 독서가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멋지고 쿨한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텍스트힙(hip)'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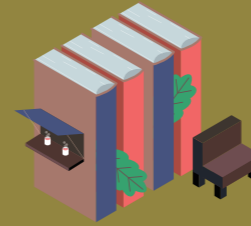
글 김지연

독서도 아날로그 열풍

필사에 빠진 MZ세대



나를 표현하는 수단, 독서



MZ세대는 태아 시절부터 영상을 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영상 매체와 친숙하다. 그런 세대가 레트로, 아날로그의 유행으로 '익숙한 것'이 아닌 '지나간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관심 갖기 시작한 후, 아날로그의 대표 격인 독서에도 주목했다. 독서는 이제 지루한 글 읽기가 아니라 나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글자를 의미하는 '텍스트'와 멋지다는 뜻의 '힙(hip)'이 합쳐진 '텍스트힙'이라는 신조어는 이렇게 생겨났다.

텍스트힙을 즐기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독서하는 모습이나 읽고 있는 책 일부를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는가 하면 도서 박람회 가고, 도서 관련 굿즈를 소비하는 식이다.

독서에서 파생된 취미도 텍스트힙의 한 방식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필사다. 말 그대로 베껴 쓴다는 뜻의 필사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인 먼 과거에는 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책 전체를 옮겨 적거나 마음에 드는 일부만 뽑아 적는 등, 문장력 향상과 정서 함양에 좋은 취미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다. SNS에 '#필사'를 검색해 보면 게시글이 62만여 개에 달하고, 서점들은 필사하기 좋은 책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해 놓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모 온라인 서점의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도 필사 관련 책이었다.

장점만 있는 게 장점인 취미

필사는 여러 장점을 지닌 취미다. 첫째로, 문장력을 높이는 데 훌륭한 수단이다. 단순히 글씨를 베껴 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곱씹고 한 문장 한 문장 옮겨 적는 과정을 통해 글의 문맥을 파악하고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가들의 훌륭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다 보면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글씨체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 좋아하는 외사나 영상 콘텐츠의 구절을 필사하면 외국어 실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복잡했던 머릿속 스위치를 잠시 끄고 아름다운 문장에 몰입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독서 중 필사할 만한 좋은 문장을 발견하거나 책 한 권을 다 필사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도 필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 중 하나다. 필사는 책을 펼쳐놓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어 누구에게나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 사이의 독서, 필사 열풍이 단순 과시용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독서율이 감소하고 문해력 저하가 사회 현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독서가 '힙한 트렌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서 문화의 활성화와 전 세대의 독서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필사하기 좋은 책 프로그램



살을 건디는 기쁨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 시 등을 담은 책으로, 삶과 일상의 기쁨과 고통에 대한 헤세의 고찰이 따뜻한 문체로 담겨 있다.



쓰는 기본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이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문장으로 독자를 시와 글쓰기의 세계로 초대한다. 누구든 시를 읽고 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타이핑웍스

필사는 손글씨로 하는 것이 좋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무작위로 나타나는 책 속 문장을 타자로 입력하는 사이트로, 책의 주제 선택도 가능하다.

0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았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02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 보호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5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며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과 함께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 소집은 김문수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인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03 8월 고용률·경황률 역대 최고·실업률 역대 최저



2024년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2%)·경제활동참가율(64.4%)이 역대 최고, 실업률(1.9%)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3만 명 증가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6월 0.2→7월 1.9→8월 1.4만 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고령층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46.7%)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73.0%)이 지속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 실업률(4.1%)과 20대 후반 실업률(3.9%)이 모두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04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키워라 워라벨!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

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오는 11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05 「(가칭)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모집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부가 ‘(가칭)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하며,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신청은 10월 8일까지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06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취업 똑·똑’을 이용하면 구직자, 청년, 소상공인 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쿼메뉴 또는 QR코드에 접속해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을 한 후, 원하는 상담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안내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07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입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입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08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화 확산 ‘4대 금지 캠페인’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SNS, 언론 등을 향한 홍보 활동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을 통해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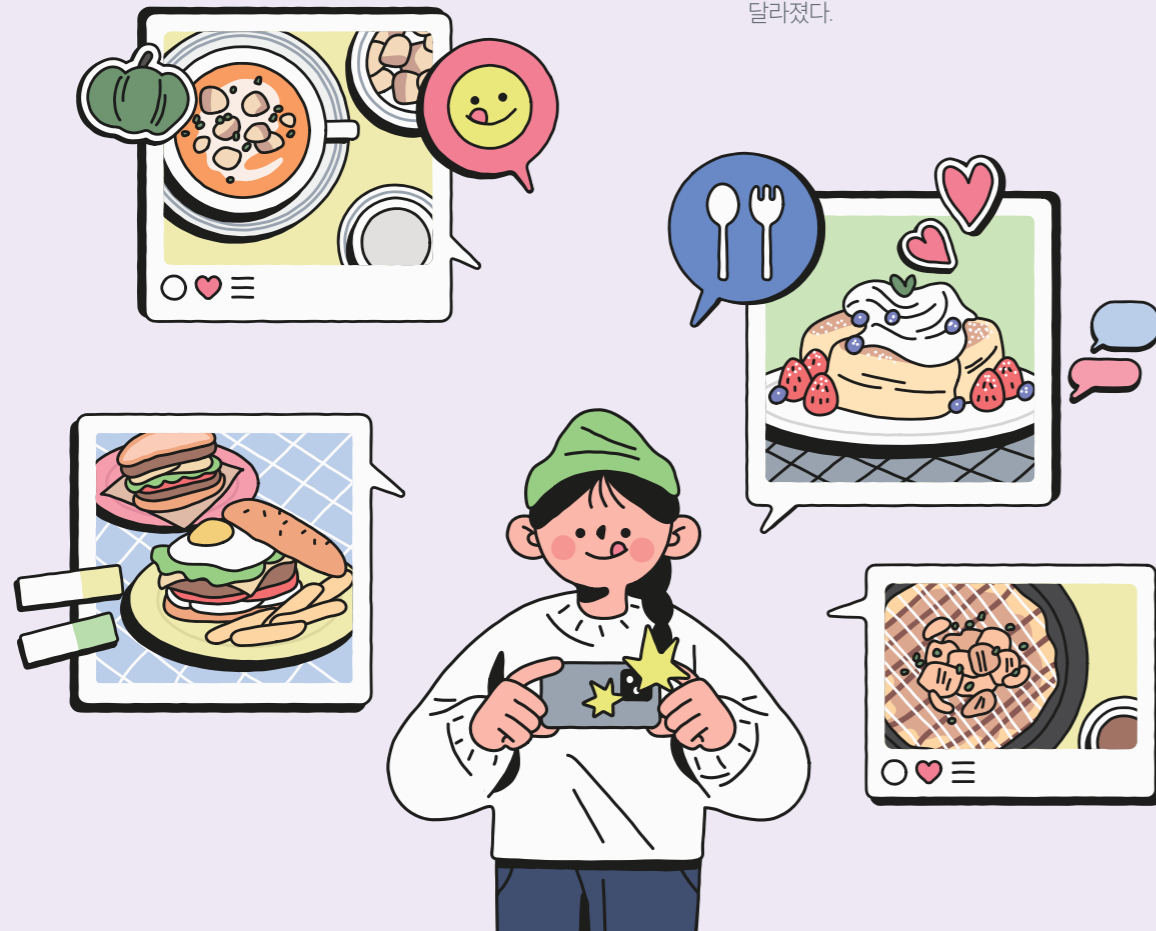
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SNS, 언론 등을 향한 홍보 활동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을 통해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SNS에 접속하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UGC(USER GENERATED CONTENT) 마케팅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글 강진우

소비자와 마케팅의 진정성 있는 만남

UGC 마케팅



이제는 인플루언서 대신 'UG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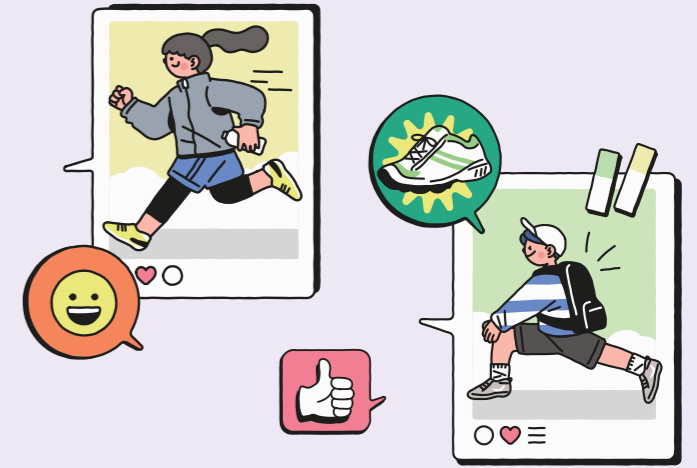
지금껏 마케팅의 주체는 엄연히 기업이었다. 즉 기업이 마케팅을 기획 및 실행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에 반기를 들고 본인의 취향에 걸맞은 이른바 '나만의 잇템'을 찾아 나서는 개성적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기존의 마케팅 문법에 인플루언서라는 완충 과정을 더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힘썼다. 하지만 그 수가 피로감을 형성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함과 동시에 뒤로 몰려 제품과 광고비를 받고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 리뷰 콘텐츠로 포장한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믿음과 효과가 낮아지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그 대안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마케팅 대안이 바로 UGC(User Generated Content)다.

UGC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퍼트리는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요즘 기업들은 UGC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기업이 직접 만든 홍보 콘텐츠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메시지가 핵심 내용이다 보니 감각적이거나 참신하지 않으면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반면 UGC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써본 소비자들의 가감 없는 후기가 담겨 있어 기업 홍보 콘텐츠 대비 믿음이 가며, 따라서 구매 활동에 인플루언서 콘텐츠 대신 UGC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UGC 마케팅의 다채로운 변신

UGC를 선호하는 경향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작년 6월 미국의 한 에이전시 기업이 18~60세 미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UGC에 언급된 브랜드를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한 비율이 86%에 달한 반면 인플루



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51%가 인플루언서 게시물은 읽지 않고 건너뛰는다고 답했으며, 62%가 인플루언서 홍보 제품을 구매한 적 없다고 밝혔다. UGC 마케팅의 강력한 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들이 긍정적인 UGC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리뷰를 남기도록 다양한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일은 예사가 된 지 오래다. 일부 기업들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국내의 한 인테리어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들이 직접 꾸민 다양한 인테리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집들이' 메뉴를 마련해 고객 유입률과 구매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글로벌 영상 카메라 제조기업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손쉽게 영상 UGC를 제작하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상 편집툴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미국의 케첩 제조사는 소비자들이 자사의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 색다른 버거를 만드는 온라인 콘테스트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벌이는 UGC 마케팅은 솔직함과 신뢰를 무기 삼아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관·경호원

책임감과 도전 정신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싶다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공공·산업시설을 보호하는 경찰관과 경호원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평소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변수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줄 안다면 경찰관·경호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도 확인해 보자.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 외 다수

ENTP의 특징

#독창적 #도전 정신

#논리적 사고

“창의적이며 분석적입니다.

복잡한 문제와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고, 사물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변론가형인 ENTP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이다. 호기심이 많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기 좋아하며,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 자기주장을 거리낌 없이 내놓곤 한다.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며, 다소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변화가 많은 환경도 도전 정신으로 돌파한다. 풍부한 지식과 유머 감각으로 타인을 즐겁게 하면서도 탁월한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E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내향형 I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N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직관형 N ✓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T 나의 사고 성향은?

사고형 T ✓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형 F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P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인식형 P ✓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경찰관의 성향

정직

솔직하고 투명하게 법 집행을 수행하고 싶다.

분석력

범죄 수사·추리력을 통해 범인을 잡고 싶다.

협동심

동료와 상호작용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신속성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일

- 범죄 수사 및 범인 검거,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 등을 담당한다.
-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한다.

취업 분야

- 지구대, 경찰서, 범죄과학수사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과학수사 경찰특공대, 범죄분석요원, 항공요원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범죄율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 따라 경찰력의 필요성은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드론, CCTV, 빅데이터, AI 등과 같은 기술 발전은 경찰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역할도 변화해 기술 친화적인 경찰관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 직업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적 발전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해야 하는 직업이다.



경호원의 성향

책임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판단력

혼란한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 빨리 대처하고 싶다.

의사소통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고 팀원과 협력하고 싶다.

운동 능력

방검복을 착용하고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일

- 현장 시설물 점검, 동선 확보, 인력 투입 계획을 세운다.
- 의뢰인을 유괴, 암살, 상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취업 분야

- 민간경호업체, 보안경비업체, 대통령 경호실
- 인명구조원, 경찰관, 무인경비시스템 종사원

경호원이 되려면?

신체 및 운동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며, 리더십과 도전 정신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학력에 대해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경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국가자격증으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글·그림 여혜리 작가

자기개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자기개발을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반쯤은 넣어서
치맥도 넣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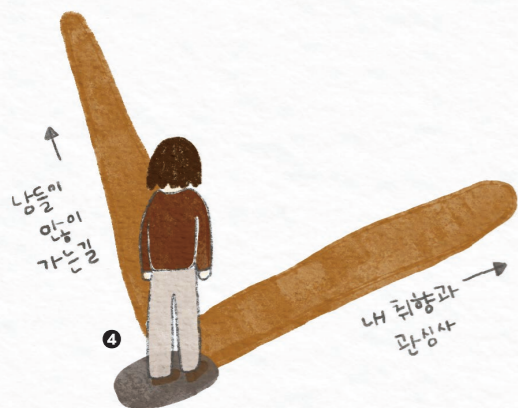


당장 눈앞의 즐거운 시간도 좋지만,
목표를 이뤘을 때의 나를 상상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오늘은 이길로
한번 가볼까나



오늘의 기대는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긴답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면 금방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
내 관심사를 고려해 목표를 잡는 것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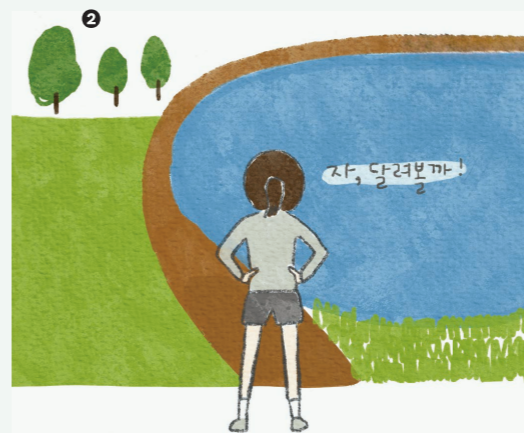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자기개발에 공들여보기,
시작해 볼까요?

가능성이 주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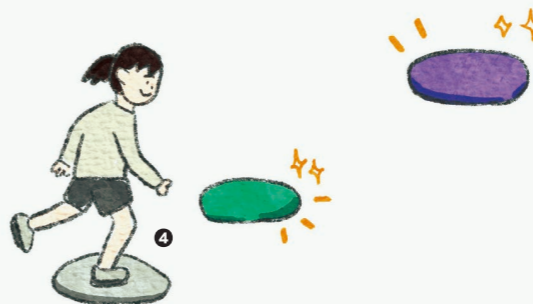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만 불어와도
우리는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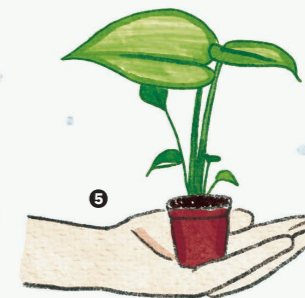
늘어지는 몸과 더위 탓에 한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난다.



이렇듯 시원해지는 계절 하나에도 기운이 생기는데



한발 한발 눈앞의 목표를 이뤄 나간다면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



가능성이란 건 어떤 대단한 힘이 아니라
내일을 또 새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10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핵심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절감 재원을 확보해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이것'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0·7z 02 (저출생)

이것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소상공인·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Tip) <일터애(愛)서> 코너

Hint!

70ㅈ0ㅈ0ㅈ0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4년 10월 16일(수)까지	9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금*연(7456)	김*복(5803)	김*혜(6369)	박*훈(5058)
		설*경(0037)	이*주(6091)	이*향(6472)	정*재(4120)
		최*빈(0784)	황*혜(9258)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1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2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10월 20일(일)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